

시편: 57장

후렴: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리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살려 주소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찌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그들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그들이 스스로 빠졌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든든하나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찌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찌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저 크신 주의 인자는 하늘에까지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리다)

성경말씀: 야고보서 2 장 24~26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중보기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인격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10. 섭리

우리에게 찾아온 것 중
하느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삶도, 건강도, 병도
모두 저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열이 오르고 병이 중할수록
하느님 사랑은 깊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도 골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화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 중
하느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64장

후렴: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주께 두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나를 구하시고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히 음모를 꾸미니 그들은 누가 보리요 하나이다
그들은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이다

불의한 것을 속으로 꾸며내고
저들은 꾸민 것을 숨기나이다
저들 각자의 생각과 그 마음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활을 쏘시리니
저들은 당장 상처를 입으리라
혀를 함부로 놀리다가 맞아 쓰러지면
보는 사람마다 다 머리를 내저으리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주께 두리다)

성경말씀: 시편 34 장 18~20

여호와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중보기도:

가족의 보살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소외감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주위의 관심이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매로 쳐서라도 길 잃지 않게 해 주신 주님, 그 막대기가 저를 길 잃지 말라고 때리신 막대기웁고,
절대로 저 아프라고 무단히 치신 적은 없사옵나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00장

후렴: (주는 선하시고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주가 우리 하나님이신줄 너희는 알찌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대저 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선하시고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20 장 26~29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중보기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성령이 오시면 '나는 죄인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지 만물이 성화가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좋게 봐준다면 그것은 단지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심이며 초자연적인 은총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시편: 117장

후렴: (주의 진실하심 영원하셔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진실하심 영원하셔라)

성경말씀: 야고보서 1 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사 고난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하느님의 자비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참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찾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7월 5일 일요일

시편: 150장

후렴: (지극히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리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하리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리다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리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리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지극히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1 장 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사적인 마음으로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세상 속에 소금으로, 희망의 불로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무슨 선한 사업의 공로가 주님의 사랑의 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질없는 말씀입니다.
제 마음 오로지 바쳐 사랑하는 길밖에는 보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이외의 것으로 보답이 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사랑을 전혀 모르는 이의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35장 1~12절

후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여, 시온에서 드리는 찬미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의 종들아 찬송하라
주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자들아

주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주를 찬송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주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도다
주께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치셨으니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주께서 너의 중에 징조와 기적을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라

그들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며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여, 시온에서 드리는 찬미 받으소서)

성경말씀: 누가복음 6 장 37~38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중보기도:

일치의 주님, 함께하는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적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민족, 정치, 종교, 이념을 이유로 대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가장 작은 것을 사랑했다는 것은 천하에 사랑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랑한 결과로 가장 못난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가장 못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144장 1~9절

후렴: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라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주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흠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0 장 27~28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중보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의 분단의 깊은 골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가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놓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여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줄도 모르면서 사랑하신다는 말버릇만 늘려서 남을 속이고 저를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는
자식 되지 말아지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46장

후렴: (내 살아 있는 한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여라
내 살아 있는 한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주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주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주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주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도다

시온아 주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살아 있는 한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1 장 22~24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중보기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과 종교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통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상의 한 점은 우주의 중심이요, 인류 평화의 극치요, 공이요, 무요, 오! 그곳이 천국입니다.

동체자비(同體慈悲)요, 인자무적(仁者無敵)이요, 진공묘유(眞空妙有)입니다.

절대 자비심의 눈으로 인류의 슬픈 마음을 보고 자비심과 임의 지혜의 귀로 인류의 아픔을 마음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임이 오신 후에야 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제 안에 임의 심안이 열린 후에야 사람의 눈물이 보이게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147장 1~11절

후렴: (예루살렘아 주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리니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 상처를 싸매시네
주께서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주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도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구름으로 보내시어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과 들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주는 먹을 것을 주시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루살렘아 주께 영광을 돌려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8 장 12~14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중보기도:

진리의 빛이신 주님, 몸과 마음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돌보아 주소서. 저들이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지극히 작은 사랑의 길인 평범한 생활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는 가운데 성화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시편: 147장 12~20절

후렴: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네 문빔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네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흘리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이다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주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않으셨나니, 그들은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성경말씀: 에베소서 2 장 8~10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보다 보편적 인류애를
먼저 생각하여 인류의 평화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속죄 사업은 완전한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못 믿어서 다른 것을 거기다 보충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배당 건물의 훌륭한 것으로 구원 얻겠다고 쓸데없는 노력합니다.
억지 연보를 시키면서 인간적 노력합니다.
성령과 진리가 유지할 것이니, 제도도 조직도 실상 필요 없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8장

후렴: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주의 위엄 찬송하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하며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관대 나를 이처럼 극진히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관대 나를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크고 작은 모든 가축들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과 바닷길을 다니는 물고기들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성경말씀: 예레미야 1 장 4~8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중보기도:

교회가 여성, 장애인, 노약자,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며, 각처에서 소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시련은 아픔을 말합니다.
영혼이 크기까지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련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면서 자연적인 만족감을 모두 물리쳐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시편: 118장 1~9절

후렴: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3 장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중보기도:

모든 민족의 주님, 다양한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서로가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로 받아들이며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오라.”(요한복음 14장 6절 참조)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몸을 빌려 재현하시고 똑같이 이 사랑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때 가졌던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시편: 19장 8~15절

후렴: (주의 계명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혀주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규례는 확실하니 모두가 다 옳도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이 행여 교만에 빠질세라 막아 주소서
그러면 나는 온전하고 크나큰 죄에서 깨끗해지리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계명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을 밝혀주도다)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2 장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보기도: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보살피 주시어,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성스러운 땅이여! 성 프란치스코께서 천지만물을 형제자매라고 사랑하셨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성을 발견하고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천지 만물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을 살리자고 잡초가 죽어 퇴비가 되고 퇴비를 먹고 쌀과 보리가 되고

동물을 살리자고 식물이 죽는다면 이 땅은 성스러운 지성소요, 사람을 살리자고 식물이 죽는다면 그는 성스러운 희생제물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119장 1~8절

후렴: (주의 규정을 지키리니 이 몸을 주의 곁에 서게 하소서)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사람들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주의 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모든 계명을 소홀히 아니 할 때
주를 참된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규정을 지키리니 이 몸을 주의 곁에 서게 하소서)

성경말씀: 누가복음 6 장 48~49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바른 교육을 하게 하시고, 배움을 받는 많은 학생이 전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학교 내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나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질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신앙이 없는 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들게 됩니다.

즉, 생사의 문제에 걸려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

크게 이해관계에 있을 때 배신하지 않는 사람,

감정 문제가 극도에 달할 때에도 의리를 중히 여기는 사람.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47장

후렴: (주는 지극히 높으신 분 온 누리의 크신 임금이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찌어다
지존하신 주는 엄위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리니
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 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주의 것임이여
주는 지존하시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지극히 높으신 분 온 누리의 크신 임금이다)

성경말씀: 에스겔 34 장 11~1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중보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지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섭리의 인도를 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누구든지 성인·성녀가 되는 것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느님께만 있는 것이기에 은총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80장

후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주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주여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주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을 덮었나이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멧돼지로 하여금 휩쓸게 하시고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하시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어, 포도밭을 찾아오시어 지켜 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불을 지르고 그것을 베어낸 자들
진노하시는 주의 면전에서 죽어 없어지리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들 위에 주를 위해
굳세게 하신 그 사람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으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만군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 장 3~5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중보기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물질만능주의에 물두하기보다 영적인 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찌 되었든지 밑에서 남을 섬기는 사랑의 희생자가 되십시오.
내가 희생이 되어야 저쪽이 따스합니다.
내가 나무가 되어 아궁이에서 타 버려야 방이 따스합니다.
내 피가 닳아진 것만큼 저 사람의 마음에 따듯한 사랑이 가게 됩니다.

시편: 119장 25~32절

후렴: (주께서 이 마음을 넓혀 주셨기에 주의 법도를 따라 달려가리다)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엮여져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적을 목상하리다
나의 영혼이 놀림을 인하여 녹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으니
주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이 마음을 넓혀 주셨기에 주의 법도를 따라 달려가리다)

성경말씀: 히브리서 5 장 8~10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중보기도:

국가 경영에 책임 맡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민을 섬기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가 가는 길은 하심下心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경에서는 겸손과 가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난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가난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8장

후렴: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주의 위엄 찬송하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하며
주의 배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관대 나를 이처럼 극진히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관대 나를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크고 작은 모든 가축들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과 바닷길을 다니는 물고기들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5 장 20~21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기도: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만물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자유로이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기만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은 망합니다.

시편: 23장

후렴: (주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ש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3 장 31~33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중보기도: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즐거이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면 처지는 것은 죄와 허물뿐입니다.
인류의 문제 가운데 죄의 문제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어린양을 보내셨습니다.
영혼이 겸손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자기는 죄뿐입니다.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사랑뿐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71장 15~24절

후렴: (온종일 나의 입은 주의 정의를 세상에 알리리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주의 정의를 전하리다
내가 주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적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안을 당함이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온종일 나의 입은 주의 정의를 세상에 알리리다)

성경말씀: 예레미야 30 장 17~22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멸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중보기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능력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이는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은 인간의 약함 속에 드러났습니다.
은총을 주시는 예수님, 저에게 겸손의 은총을 내리소서.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119장 49~56절

후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고통 가운데 제 위로가 되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됨이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마구 조롱하여도
주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계명을 기억하며
주여, 나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그네살이 하는 이 집에서
주의 율제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때문이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고통 가운데 제 위로가 되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0 장 25~28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중보기도:

노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걸 사람은 늙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도, 내가 남을 어쩔까도, 내가 물질을 어쩔까도,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종 뒀을 깨닫게 하옵신 주님, 모든 사람, 특히 동광원에 계신 분들,
특히 병약자, 불구하신 분들 무식한 이들,
지혜 없으신 분들이 다 저의 상전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64장

후렴: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주께 두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나를 구하시고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히 음모를 꾸미니 그들은 누가 보리요 하나이다
그들은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이다

불의한 것을 속으로 꾸며내고
저들은 꾸민 것을 숨기나이다
저들 각자의 생각과 그 마음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활을 쏘시리니
저들은 당장 상처를 입으리라
혀를 함부로 놀리다가 맞아 쓰러지면
보는 사람마다 다 머리를 내저으리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주께 두리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20 장 15~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중보기도:

교회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아! 절대적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시여!
저를 지옥 밑창까지 따라와 주시면서까지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시여!
생각할수록 감격하는 동시, 저 한 짚은 생각할수록 하염없사옵나이다.
참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저란 것이 그 무엇이었겠습니까?
개도, 돼지보다도 못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신기롭고 감사할 따름이옵나이다.

시편: 132장 11~18절

후렴: (주께서 거하실 거처로 시온을 택하였도다)

주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시며
돌이키지 않으실 언약을 맺으시네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찌라
그들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으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거하실 거처로 시온을 택하였도다)

성경말씀: 시편 63 장 1~3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 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중보기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참 지혜를 알고 올바른 일에 더 관심과 실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성령의 역사는 내재하시면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받음으로 성령은 거할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거짓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시편: 145장 1~13절

후렴: (날이면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나의 왕이신 내 하나님을 기리리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높이 기리리다
날이면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주는 위대하시고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
그 위대한 행적은 측량할 길 없나이다
주가 하신 일들 대대로 선포하리니
능하심도 대대로 일컬어지나이다

주의 위엄의 찬란한 영광 사람들이 말하고
그 묘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리다
이룩하신 놀라우신 일들 전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그지없는 인자하신 주를 잊지 않고 전하며
주의 크신 의로우심을 높이 외치리다
주는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사랑이 지극하시나이다

주는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
일체의 조물들을 어여삐 여기시리다
일체 주의 조물들이 주여, 주를 찬양하고
성도들이 주께 조아려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 나라의 영광을 들어 말하며
주께서 행하신 능력을 일컬으리다
주의 장하신 일 사람마다 아셨고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날이면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성경말씀: 요한1서 4 장 18~19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중보기도:

삶과 평안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는 사랑의 길이요, 그는 사랑의 진리요, 그는 사랑의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한 가지 사랑뿐입니다.

믿음에 가장 귀한 것은 한 가지 사랑뿐입니다.

자선 사업에 가장 귀한 것도 한 가지 사랑입니다.

오! 주님께서도 가장 바라신 것은 한 가지 사랑뿐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하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시편: 119장 81~88절

후렴: (주여, 주의 자애에 따라 나를 살려 주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않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 벌하시겠나이까

주의 법을 좇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으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법을 내가 지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주의 자애에 따라 나를 살려 주소서)

성경말씀: 야고보서 1 장 19~21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중보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성도들이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에 전심으로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 실천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만일 달에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도 또한 달 같이 둥글게 반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도 하나의 달입니다.

지구도 달이라면 햇빛을 반사할 것입니다.

오! 지구와 해와 달은 본래 하나였는데 셋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빛의 가감이 있었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해라면 예수님은 지구요, 저는 달입니다.

해와 지구와 달은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햇빛은 빛과 열이 있습니다.

빛은 예수요 열은 성령입니다.

빛은 지혜요 열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시편: 118장 1~9절

후렴: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3 장 44~46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꿀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 사랑만 하다 가더라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공상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해 타산이 없는 금을 쥐도 살 수 없는 무게 있는 값진 사랑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시편: 136장 11~26절

후렴: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도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엮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큰 왕들을 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도다)

성경말씀: 예레미야 31 장 9~10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홀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중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뜻을 따라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의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사랑 앞에서는 곧 자비의 능력이요, 비밀이요,
신비요, 진리요, 복음입니다.
자비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이요,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요,
우리들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소이다(마태복음 16장 16~20절).
깨닫고 보니 천지만물과 인생고와 사업의 실패와 장애와 위험과 갈등과 괴로움과 허무감과 절망감과
그 모든 영적 고통과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과 고독과 그 모든, 제 일평생에 부딪친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제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고 역사하신 하느님의 은총의 섭리였나이다(베드로전서 1장 9장 로마서 8장
35~39절 참조).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21장

후렴: (주 안에 영원한 복이 있어 주 앞에서 기쁨으로 넘치나이다)

주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주께 생명을 빌었더니
영원토록 긴긴 날을 그에게 베푸셨나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이다

왕이 주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않나이다
네 손이 네 모든 원수를 발견하리니
네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네가 노할 때에 그들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네가 그들 후손을 땅에서 멸하리니
그들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그들은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네가 그들로 돌아서게 하리니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안에 영원한 복이 있어 주 앞에서 기쁨으로 넘치나이다)

성경말씀: 신명기 6 장 4~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중보기도: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실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이 영문領門 밖에는 희생의 현장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요,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영문 밖이 곧 지성소입니다.(히브리서 13장 11~13절 참조)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67장

후렴: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드러내소서
또 다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찌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로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0 장 21~25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돌려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인도자이신 주님, 가정 또는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시고 살피 주시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는 전체(全體)시오, 저는 지극히 적은 한 부분입니다.
전체가 살면 저도 살 수 있으나, 전체는 죽고 저만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체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산 것이고,
제가 따로 움직임은 헛손질이요 헛발짓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제 목적이요 제 목적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19장 113~120절

후렴: (주는 저의 피난처시니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끼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저의 피난처시니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4 장 13~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실현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2. 사랑으로 살라

저를 하느님 마음에 들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제가 탐(探)내는 유일한 보물인 것을
제 영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저의 영혼은 부끄럽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22장 1~11절

후렴: (날 때부터 주께 바쳐진 이 몸이라,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체하십니까
주는 옥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은 구하심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않았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사람의 뱀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나이다

저가 주께 의탁하니 구원하시겠지
저를 기뻐하시니 빼내주시겠지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니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날 때부터 주께 바쳐진 이 몸이라,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네)

성경말씀: 히브리서 4 장 14~1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중보기도:

희망이신 주님,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빛이 그들 가슴을 비추어주소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깨달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용기를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님과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늘 실수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 주옵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보는 눈물 속에 와 계십니다.
사랑으로 봉사하여 땀 흘리며 고생하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릴 때 찾아 주셨습니다.
제가 고통을 당할 때 찾아 오셨습니다.
가슴속에 오셔서 은총으로 제 영혼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